

# “더 많이, 자주 드려요”... 배당금 확 늘리는 상장사들

배당실시 코스피 상장사 증가세  
배당성향 급증... 주주환원 강화  
중간배당 확대... SK는 올 50% ↑  
현금배당 등 주주도 목소리 커져

기업이 배당을 늘리며 주주환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주들 또한 주주제안을 통해 배당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5일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사의 중간배당금 총액은 2017년 2조203억원, 2018년 3조5488억원, 2019년 3조7128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영향으로 총액이 2조9208억원(46개사)으로 줄어 들었지만 올해 28% 증가한 59개사가 중간배당을 공시하고 나서면서 상승세가 다시 회복될 예정이다.

◆상장사, 중간배당 증가

〈코스피 상장사 배당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회사수	629개	641개	671개	677개
총자본(백만원)	1,500,019,800	1,576,057,900	1,682,136,700	1,748,511,700
당기순이익(백만원)	85,463,500	71,959,500	33,637,800	41,672,300
현금배당금(백만원)	14,714,000	13,668,000	13,058,800	25,862,600
자기자본(백만원)	878,363,900	931,863,200	985,176,200	1,019,769,200
배당성향	17.5%	17%	27.3%	50.3%
자기자본비율	58.6%	59.1%	58.6%	58.3%
자기자본이익률	9.7%	7.7%	3.4%	4.1%

/한국거래소

SK그룹 지주회사인 SK는 지난 21일 주당 1500원의 중간배당을 공시했다. 기존의 중간배당액인 1000원보다 50%나 올린 금액이다. 총 지급액도 지난해 529억원에서 793억원으로 늘었다. 호실적을 내놓고 있는 4대 금융지주도 중간배당을 앞두고 있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공시했고,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이사회 결의

로 중간배당을 결정할 수 있다. 상장사들의 전제적인 배당 의지도 확고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배당을 실시한 코스피 상장사 수는 2017년 629개사, 2018년 641개사, 2019년엔 671개사, 2020년 677개사로 증가했다. 배당금은 2017년 14조7140억원에서 2019년 13조 588억원으로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

였지만 중간배당으로 한정했을 때와 달리 전체 배당금액은 지난해 25조862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7.5%에서 2020년 50.3%로 급증했다. 벌어들인 만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기업의 주주친화적인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다만 자기자본이 늘어남에도 전반적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17년 9.7%에서 2020년 4.1%로 줄어 경계해야 할 지표로 꼽힌다.

◆주주도 배당 주장하는 시대

배당 확대는 기업뿐만이 아니다. 주주들이 스스로 배당 상황을 요구하고 나서며 주주제안 사례도 늘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건수는 총 423건이었다. 특히 올해 3월까지 제기된 안건 수는 2019년 한 해

에 제기된 안건 수와 동일한 107건으로, 활발한 제안이 이뤄지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등 주주참여활동이 2018년부터 본격화된 것을 감안하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423건의 주주제안 건수 중 배당과 관련된 제안은 총 63건으로 15%에 달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금 배당 확대를 요구한 경우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주식배당을 요구한 게 4건, 차등배당을 요구한 게 3건, 배당성향을 상향조정하란 게 1건, 자기주식의 주식배당을 요구한 게 1건이었다. 정관을 변경해 중간배당이나 분기배당을 도입하란 요구도 6건 있었다. 정관 변경 요구를 제외한 배당 관련 안건들의 경우 가결된 건은 1건으로 가결률이 낮았지만 주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유경 기자 noon@metroseoul.co.kr

## 천랩 인수, B2B 확대... 미래먹거리 ‘확보’

metro 관심종목

CJ제일제당

마이크로바이옴 인수로 시너지 기대  
美슈와스 인수 등 국내외 B2B 활발

CJ제일제당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하반기까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회사 천랩을 인수하며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CJ제일제당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00원(0.11%) 오른 47만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7월 12일 44만3000원이었던 주가는 2주만에 2만7000원이 나왔다. 연초와 비교하면 주가는 22% 상승했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의 2분기 예상 매출액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6.53% 증가한 6조3074억원,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4129억원이다. 증권가에선 CJ제일제당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도 어닝 서프라이

즈를 달성한 것으로 예측한다.

CJ대한통운을 제외한 CJ제일제당의 주 사업군은 크게 식품과 바이오로 나뉜다. 식품의 경우 제품 판매가를 인상한 결과가 이번 분기에 반영되면서 우려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월 햇반과 두부, 양념장류 등의 가격을 인상했고, 이달 초부터는 스팸 등 육가공 제품 20여종의 가격을 9.5% 인상했다.

B2B(기업 간) 채널이 활기를 되찾는 것도 긍정적인 지표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는 코로나19 여파로 B2C 채널이 매출의 주축을 이뤘다면, 하반기엔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국내외 B2B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CJ제일제당의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B2B 매출은 3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B2B 채널 활성화가 기대된다. CJ제일제당은 지난 달 북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메인 캐피탈에게 매각했던 슈와스 지분 19%를 다시 인수했다. 한유정 대신증권 연구원은 “슈와스와의 시너지로 하반기 미국 냉동 그로서리(Grocery) 입점률이

60%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상반기는 국내 가공식품과 바이오가 실적 개선에 주도했지만 하반기 성장은 미국 가공식품이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오 부문의 성장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은 그간 사료 첨가제를 생산하는 그린바이오, 친환경 소재를 생산하는 화이트바이오 사업에 집중해 왔다. 1분기 바이오부문 매출액은 1조3650억원으로 총 매출액의 22%를 차지했다.

심지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높은 바이오 스팟가 격이 2분기에 높은 비중으로 반영되고, 3분기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CJ제일제당은 마이크로바이옴 회사 천랩을 인수하면서 제약산업으로 사업 영역도 확장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그린과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통해 균주를 개발하고 발효 공정하는 역량을 갖춰 온 만큼 각각의 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란 의견이 나온다.

주요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살펴보면 이베스트투자증권이 70만원으로 목표 주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다. /양유경 기자



## 한강뷰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 주목

HDC현대산업개발 이달 분양 예정  
하이엔드 라이프 오피스, 총 598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달 중 하이엔드 라이프 오피스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사진)’을 선보인다.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은 지하 6층~지상 21층, 연면적 약 30만1092㎡ 규모로 지어진다. 판매시설과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돼 다방면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37~158㎡, 업무시설 총 598실이 들어선다.

25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하이엔드 라이프 오피스’는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뿐만 아니라 내부에 화장실, 샤워실, 팬트리 등이 포함되어 프라이버시까지 보장되는 복합공간이다. 또한 편의시설, 문화공간, 녹지공간, 쇼핑시설까지 한 곳에서 해결 할 수 있어, 자유롭고 창의적인 업무환경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최근 하이엔드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강이 펼쳐지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조성된다는 소식에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한강 조망은 물론 인피니티 풀, 파크아일랜드 등 차별화된 시설은 물론 이케아와 영화관, 이마트(예정) 등 입점시설까지 차별화된 만큼 특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망으로는 강일IC, 올림픽대로를 통해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좋으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사업지 옆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공사 중이며 ‘서울~안성 구간’과 ‘안성~세종 구간’은 각각 2022년과 2024년 개통 예정이다. 또 강동IC(가칭, 예정), 고덕대교(가칭, 예정)가 조성 중이며, 강동~하남~남양주를 잇는 9호선 연장선 샘터공원역(예정)도 들어선다. 현장 홍보관은 서울 강동구 브이센터 전시장(고덕동 402-6)에 조성됐다. /정연우 기자

## SK에코플랜트, 회사채 수요예측 또 ‘흥행’

모집금액 7배 넘는 1.1조원 몰려  
29일 3000억으로 증액해 발행

SK에코플랜트는 제168-1, 168-2회 회사채(신용등급 A-) 수요예측에서 총 모집금액 1500억원의 7배를 뛰어넘는 약 1조12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고 25일 밝혔다.

약 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회사채 발행규모를 총 3000억원으로 증액해 오는 29일 발행한다. 지난 2월에 공모한 녹색채권(Green Bond)도 수요예측 당시 모집금액 1500억원의 8

배가 넘는 1조2100억원의 자금이 몰려 흥행에 성공했다.

이번 회사채는 만기 2년물 1000억원과 만기 3년물 2000억원이며, 이 중 3년물은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이다. 지속가능채권은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녹색채권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사회적 채권(Social bond)이 혼합된 ESG 채권이다.

SK에코플랜트는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기업 인수, 친환경 건축물 투자, 비즈파트너 상생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5월 새롭게 사

명을 변경하고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수한 국내 최대 환경플랫폼 기업 ‘환경시설관리(옛 EMC홀딩스)’에 이어 올해 6월에는 충청권 폐기물 처리기업 4곳을 추가 인수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사업, RE100 사업, 해상풍력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그룹의 탄소중립(Net Zero) 실현에 기여할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는 오는 2023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해 친환경 신사업 개발과 기술혁신기업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오토(OTO) 플랫폼을 구축해 소통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 전국 6556가구 청약... 전분주택 6곳 개관

분양 캘린더

7월 넷째주에는 전국 15곳에서 총 6556가구(오피스텔·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공공지원 민간임대 포함)의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8월부터 입주

가능한 후보양아파트 ‘브이티스타일’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세종에서는 이전기관 공무원 대상 특별공급이 폐지된 이후 첫 분양인 ‘세종자이 더시티’ 1350가구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해당 거주자의 사전청약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전분주택은 6곳이 개관한다. /정연우 기자